

〈발표3〉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연구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체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소정(광주대)

1. 연구의 필요성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피해여성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폭력이 지속됨에 따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도 영위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문제는 폭력 자체가 야기하는 신체적인 상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도 크지만 폭력 행위자의 힘이 일상적으로 피해여성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불안, 두려움, 무기력,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피해와 삶의 질적인 훼손이 내면의 죽음과 같은 경험을 조성하면서 여성의 삶을 피폐하게 몰아간다(Van Den Bergh, 1995; 신은주, 1997; Worell, 2003).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폭력피해로 인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예컨대 맞으면서 남편에게 더욱 의존적이 된다든가, 시간이 흐를수록 맞고만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소위 '정상'이 아닌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아 외, 2003). 또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되면서 아이 양육이나 출산과 같은 역할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곧 가족의 문제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즉 가정폭력 해위는 여성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기확신감을 상실케 하여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2차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김재엽, 1998).

이와 더불어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이 폭력 피해여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폭력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은 폭력피해의 수치스러움,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여성 스스로의 심리적 한계로 초래된다고 설명되기도 하지만(Gondolf & Fisher, 1988), Gells & Straus(1998)는 확대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와 같은 지지체계 자체가 가족을 위해 '폭력을 참고 인내하는 어머니', '맞고 사는 무기력한 사람'과 같은 피해여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팽배해 있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제한된다고 보았다(김선아 외, 2003; 김주현, 2006). 양현아(2006)의 조사결과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나름대로 폭력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실을 가족과 이웃과 같은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청해주고 수용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인해 관계로부터 고립된다고 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어딘가 문제가 있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가정폭력의 문제를 은폐하고 더욱 피해여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써 여성의 자존감 저하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지체계의 기능 부재 속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가중된다. 이렇게 여성의 인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남편 주도의 가정폭력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1회 이상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지극히 이례적

이고 미미한 문제로는 볼 수가 없을 만큼 가족 내 남성에게 의한 여성폭력의 일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두말할 나위 없이 사회적 대책과 개입이 적극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6년 조사된 1차년도 복지패널 가구원 자료를 분석하여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어떻게 매개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가정폭력 피해가 기혼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의 우울과 자존감의 저하,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Dutton, 1992; Gleason, 1993; 신은주, 1997; 홍창희, 1997; 김선아 외, 2003; 김재엽·이서원, 2005; 양현아, 2006; 김주현,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폭력 피해라는 독립변수와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체계라는 종속변수 간의 단선적인 관계에 주목하고 있어 변수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들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파악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가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나 자존감의 감소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가정폭력 피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체계 두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것이며 실증적인 발견을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요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피해는 피해여성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Worell, 2003; 김선아 외, 2003). 또한 가정폭력 피해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김경신·김정란, 2002).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단절을 유도하며(양현아, 2006; 김주현, 2006)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의 단절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우울을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Gore, 1981; House, 1981; 김경신, 2004). 또한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피해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나 고립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도구적 지지로부터 고립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역시 우울을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김주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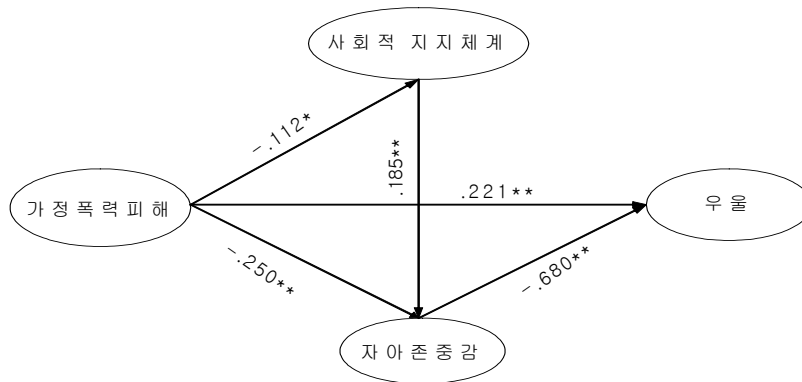
3. 연구방법

본 연구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06년 가구방문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로 실시된 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사용된 분석자료는 기혼여성이며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여성 총 1,326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0.0 for Windows와 AMOS 5.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1) 구조모형 분석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원 연구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 → 우울의 경로가 추가로 있었으나 이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최종모형에서 사회적 지지체계 → 우울의 경로를 제거하고 다시 검토한 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chi^2=47.502(df=15)$, NFI=.974, CFI=.982, PCFI=.409, RMSEA=.040

<그림 1> 최종모형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chi^2=47.502(df=15)$, $p=.000$, NFI=.974, CFI=.982, PCFI=.409, RMSEA=.040으로 적합한 수준이다. <표 1>에서 최종모형과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종모형에서는 카이제곱통계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서 PCFI 지수가 약간 높아지고 RMSEA가 약간 낮아져, 수정을 통해 모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간명도가 향상된 모형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초기모형과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chi^2(df)$	NFI	CFI	PCFI	RMSEA	$\Delta\chi^2$
초기모형	46.520(14)	.975	.982	.382	.042	-
최종모형	47.502(15)	.974	.982	.409	.040	0.982(1)

2)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로

변수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보면 변수들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표 2>는 최종모형에서 추정된 변수 사이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보여준다.

<표 2> 최종모형 변수의 효과 분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정폭력 피해 → 우울	.404	.221	.184
가정폭력 피해 → 사회적 지지체계	-.112	-.112	-
가정폭력 피해 → 자아존중감	-.270	-.250	-.021
자아존중감 → 우울	-.680	-.680	-
사회적 지지체계 → 자아존중감	.185	.185	-
사회적 지지체계 → 우울	-.126	-	-.126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경로 1> 가정폭력 피해 → 우울 :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은 높아진다(.221).

<경로 2> 가정폭력 피해 → 자아존중감 → 우울 :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250),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진다(-.680).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170(-.250×-.680)이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로 3> 가정폭력 피해 → 사회적 지지체계 → 자아존중감 → 우울 :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는 감소되고(-.112), 사회적 지지체계가 감소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185),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진다(-.680).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14(.112×.185×.680)이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는 감소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감소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모형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 검증된 최종모형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혼 여성의 우울과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 세가지 변수에 대해 각각 집단을 나누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령은 20~40대와 50~60대로 나누었으며, 소득수준은 매우 가난하거나 가난하다고 응답한 기혼 여성과 보통이거나 부유라고 응답한 기혼여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기혼 여성 집단과 대졸 이상 기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모형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연령, 소득수준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폭력피해 여성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졸 이상 여성 집단은 고졸 이하 여성집단보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고졸 이하 여성집단과 같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크기가 더 낮았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나 자아존중감의 저하,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자존감의 감소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를 가져오고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 자존감 저하,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 자체가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또 피해여성의 우울이 아동양육과 같은 역할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2차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역할 수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할 것이며 가해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폭력 경험 자체로 자존감 감소나 우울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을 통해 자존감의 감소와 우울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돕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을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찰, 병원, 사회기관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이 간과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과 친척, 이웃,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들이 폭력 피해여성에 대해 낙인을 찍고 배척하고 경계하기 보다는 폭력 가정에 대해 보호, 감시를 제공하는 지원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 운동과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족을 위해 고통을 참는 어머니’,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와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하게 잔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로써 인식되어 왔던 보호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기제들을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신. 2004. “가정폭력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와 방안 :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11-134.
- 김경신 · 김정란. 2002. “가정폭력 세대전이가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 침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79-98.
- 김선아 · 김소야자 · 남경아 · 박정화 · 이현화. 2003. “가정폭력으로 쉽터에 입소한 여성의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대한간호학회지』 33(7), 981-989.
- 김재엽. 1998.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3-155.
- 김재엽 · 이서원. 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 및 영향”. 『연세행정논총』 28, 127-150.

- 김주현. 2006.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은주. 1997.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 195-217.
- 양현아. 2006.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 1-45.
- 여성가족부.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부 연구보고서
- 홍창희. 1997. "가정폭력과 여성의 정신건강".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 8, 41-58.
- Dutton, M. A. 1992. *Empowering and Healing the Battered Women*. New York: Springer.
- Gleason, W. 1993. "Mental Disorders in Battered Women : An Empirical Study". *Violence Vict* 8. 53-68.
- Gore, S. 1981.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Social Support : an Appraisal and Clarification of Research Model". In B.S Dohrenwend, B.P. Dohrenwend(Eds.),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ir Contexts*(p. 202-222). New York : Prodist.
- Goldolf, E. W. and E. R. Fisher. 1988. *Battered Women as Survivors : An Alternative to Treating Learned Helplessness*. Toronto : D. C. Health.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 Addison-Wesley.
- Van Den Bergh, N. 1995. *Feminist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NASW Press.
- Worell, J., and P. Remer. 2003. *Feminist Perspective in Therapy*. John Wiley and Sons.